



여성환경연대는 6월 1일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의 고택에서 열린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정무역 패션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변정수씨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은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수입된 '공정무역 의류'를 선보였다. 사진제공=여성환경연대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느 커피 음료의 광고 문구처럼 커피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기호음료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의 농민은 농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들의 예닐곱 살 난 자녀들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무거운 커피 자루를 지고 옮겨야 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농민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계화의 이면’이다.

제3세계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제값’ 주고 사자는 ‘공정무역 운동’이 국내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공정무역이란?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공정 무역), ‘대안무역(Alternative Trade)’이라고도 불리는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생산원가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치르자’는 시민사회운동을 일컫는다. 다국적기업이 제3세계 천연자원을 헐값에 매점매석하거나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한 대가로 싼값에 구입한 농산물 대신, 생산 농민에게 생산자 조건에 맞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매상의 유통 마진 중 일부는 생산자에게 돌아갈도록 하는 물건을 사자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저개발국 농민의 삶은 갈수록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무역 운동은 1960년대 유럽에서 출발했다.

제3세계 생산자에게 더 나은 거래를 보장한다’는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상품들은 기존 제품보다 10~2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정무역 상품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의 힘

공정무역 제품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공정무역협회(FLO) 보고에 따르면 공정무역 상품은 18개국에서 매년 20% 이상 매출이 늘고 있다. 영국의 경

직거래로 유통마진 일부 생산자에게 돌려줘 원가·생계비 보장

가격 10~20% 비싸지만 매출 매년 20% 성장 유기농 인기도 한몫

여성환경연대도 동참 예정 ‘아름다운 커피’ 등 판매 홈페이지서 구입 가능

우 공정무역 마크를 제정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10년 만에 연간 수익이 1억 파운드(약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양심적 소비”를 촉구하는 공정무역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지만, 공정무역 제품 자체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 인증기관은 420여 지역 생산자 그룹과 20개국 공정무역 단체와 연계해 제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의 요구 수준

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사는 길

제3세계 생산품 제값 주고 사자!

■공정무역 상품 써 보셨습니까?



도 높아지자 네슬레나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도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실효성이 적고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애덤스 미스 재단은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결국 해당 농산물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공정무역이 시장질서를 깨뜨리고, 경쟁력 없는 생산자들의 명맥을 억지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공격한다.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옥스팜은 “공정무역의 최종목표는 소규모 생산자들도 거대 다국적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공평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바꾸는데 있다”며 “소비자들이 좀 비싸더라도 윤리적인 상품을 선택한다면 기형적인 무역 관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게’ 통해 국내 첫 선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처음 공정무역 운동이 알려졌다. 아름다운 가게는 쓰던 물건을 기증받아 이를 되팔고 그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는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 운동’을 펼치는 단체.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에서는 제3세계 생산품을 직거래하는 ‘대안무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

국내에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 소개한 아름다운 가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3세계에서 생산된 생활용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 이익은 15~30% 정도가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각보와 코끼리 손거울, 원두커피, 보석함.

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의 15~30%를 생산자 이윤으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름다운 가게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다. 9800원에 판매되는 ‘아름다운 커피’의 경우 똑같은 양의 커피 원료가 백화점에서 판매될 경우 생산자에게 약 400원의 수익이 돌아가지만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면 3000원 가량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성환경연대(www.ecofem.or.kr)는 6월 1일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탤런트 변정수씨를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의류를 선보이는 패션쇼를 개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하반기 중으로 인도의 오가닉 코튼, 네팔의 천연염색 의류 등을 판매하는 등 공정무역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여성취업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4>

감잎 양갱

가끔 짙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차가 몸에 좋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음료이다 보니 짙에서는 차문화가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차 외에도 황차나 청차 같은 다양한 차도 있고 쉼차나 감잎차 같은 대용차도 있습니다. 저 역시 차라고 하면 녹차나 홍차 정도만 알았는데, 전국 각지의 짙에 다닐 기회가 늘면서 여러 차를 마셔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찰음식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차문화 접할 기회가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해 가을, 설악산 등반길에 한 사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감나무에 올라 감잎을 따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참을 바라보다 “감잎을 어디다 쓰실 건가요?”라고 여쭙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감잎차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잎차라는 말에 고개를 들어 암자를 둘러보니 정말 감나무가 암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등반길에는 그저 나무가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감나무였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잠시 일을 멈추고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원하게 식힌 감잎차였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짙에서는 떡도 감잎으로 만들고 차도 감잎으로 만들고 장아찌도 감잎으로 담는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짙에 내려주신 큰 선물입니다.”

감잎차는 시원하고 달콤했고, 시원한 감잎차를 따라주던 스님의 모습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육심 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삶의 보람자리 말씀입니다.

“이 가을이 무르익으면 저 감나무엔 감이 주렁주렁 열리겠지? 첫눈이 내리면 감나무엔 외로이 흥시가 익어 사찰을 찾는 보살님들의 발걸음이 행복을 주겠지?”

이 풍성한 감나무 숲에 걸어 발담에 들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이곳이 바로 극락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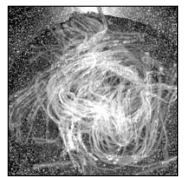
■만드는 법

감잎 양갱 재료: 감잎 10g, 통팔 500g, 감잎 끓인물 600ml, 설탕 400g, 물엿 20g

- ① 감잎차에 물 700ml를 붓고 끓여 600ml로 만들어 준다.
- ② 한천은 1시간 전에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놓는다.
- ③ 한천에 감잎 물을 넣고 강한 불로 끓여 완전히 녹인 후 실탕을 낸다.
- ④ 한천 녹인 물을 고운체로 걸러준다.
- ⑤ ④에 통팔을 넣고 졸인 후 물엿을 넣어 부드럽게 풀어준다.
- ⑥ ⑤의 마지막 단계에서 밤을 넣고 졸인다.
- ⑦ 원하는 틀에 부어 실온에서 굳힌다.
- ⑧ 굳으면 틀에서 떼어내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다음 주에는 녹차나물과 청궁나물을 만들어 봅시다.

■박상혜(사찰음식연구원)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동토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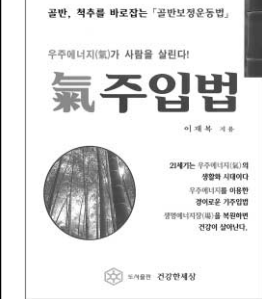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열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 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